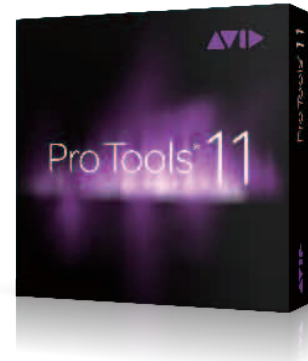




새로운 오디오 프로덕션의 표준 Pro Tools 11 튜토리얼 ③

+ 조용일 한국아비드 오디오 스페셜리스트



Pro Tools 11 튜토리얼 3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1편과 2편에서 다루지 못한 Pro Tools 11에서 꼭 기억해야 할 주요 기능과 더불어 믹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레코딩 중 오토메이션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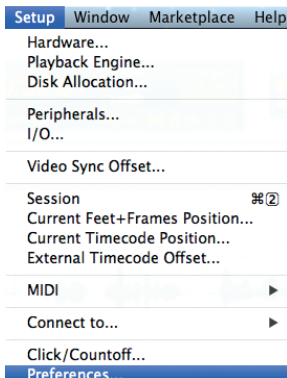
오디오 믹싱 작업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손가락은 10개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믹싱에서 10개 이상의 패이더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없으며 최근 오디오 채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토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빠른 반응 속도도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 뭐니뭐니해도 믹싱 엔지니어가 컨트롤한 데이터를 조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Pro Tools 11의 경우 Time-Stamped 방식으로 기존 버전들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오토메이션을 기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레코딩 중에도 오토메이션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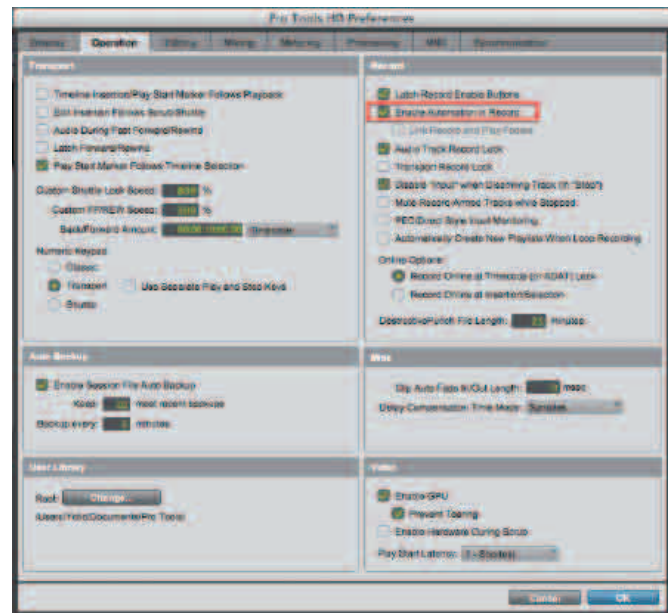
우선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

Setup > Preference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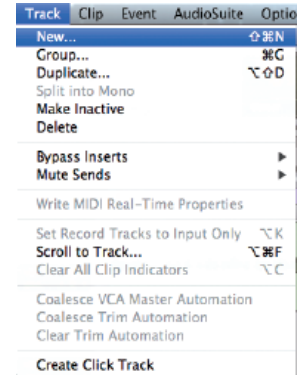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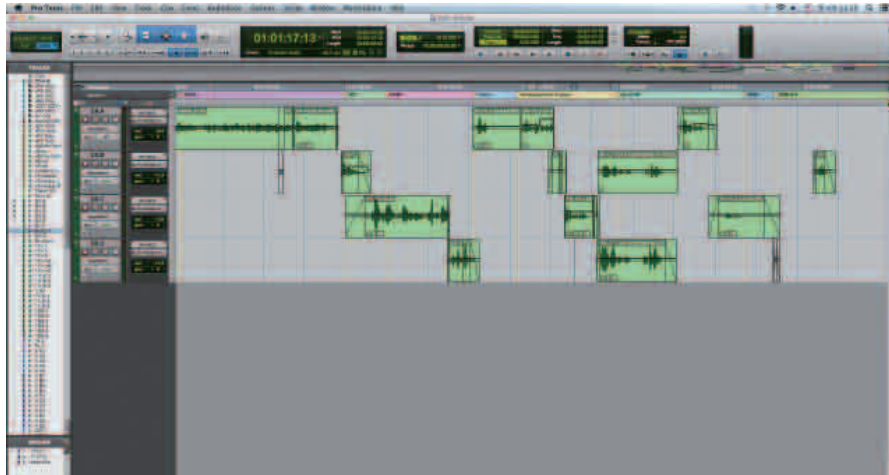


환경설정 윈도우가 나타나면 Operation 탭을 클릭한 후 레코드 섹션에서 'Enable Automation in Record' 옵션을 체크하고 OK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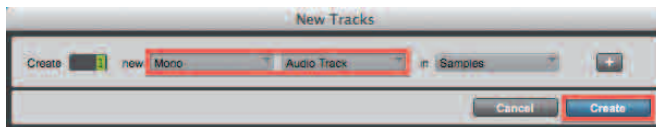
작업하고자 하는 세션을 열고 레코딩 작업을 위해 트랙을 정리한다.

레코딩할 오디오 트랙을 생성한다. Track >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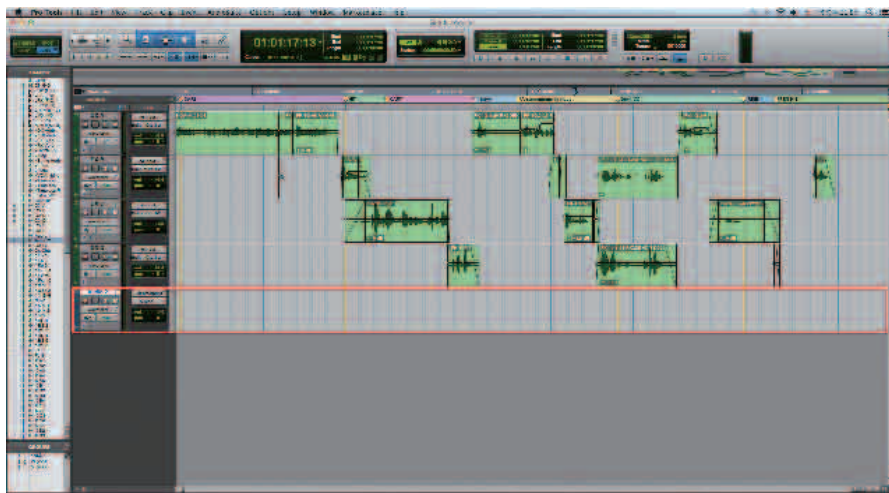
New Track 윈도우가 나타나면 트랙의 종류와 수를 선택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한다(본 지면에서는 단일 모노 소스를 레코딩할 것이기에 Mono, Audio Track을 선택하고 Create를 클릭한다).

오디오 인풋 및 아웃풋을 선택한다.



새로운 트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한다.

오토메이션의 기록을 위해 dyn 옆에 있는 read 버튼을 클릭하여 오토메이션을 touch 모드로 설정한다.



레코딩 중에 기록되는 볼륨에 관한 오토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뷰모드를 볼륨 뷰로 설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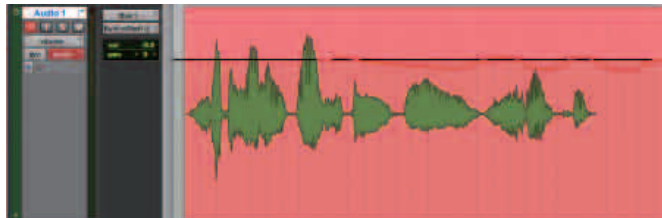
레코딩을 시작할 트랙의 레코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여 레코딩을 준비한다.



자! 이제 1차적인 레코딩 준비는 마친 상태이다. 이제 인풋 오디오 소스가 올바르게 입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레코딩을 시작하기 위해 트랜스포트에 있는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시킨다.



입력 소스가 레코딩되고 있는 중간에 페이더를 이동하여 볼륨에 관한 오토메이션을 조절하면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는 오토메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ip 1 : 콘트롤 서페이스를 활용한 오토메이션

일반적으로 오토메이션을 기록할 때에는 믹스 윈도우에서 마우스로 해당 트랙의 페이더를 조절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콘트롤할 수 있는 콘트롤 서페이스를 통해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콘트롤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밀하고 믹싱 엔지니어의 감각을 살려 작업할 수 있다.



Artist Control (좌) / Artist Mix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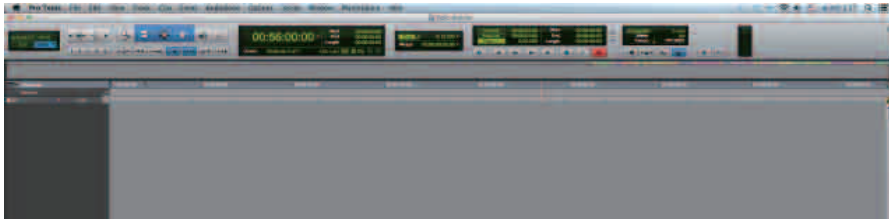
기존에는 모든 오디오 레코딩이 완료된 후에 따로 오토메이션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를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빠름 빠름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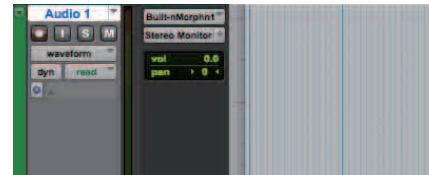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오디오 작업자 대부분은 신속한 작업 환경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쓸 것이며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단축키 사용을 상당히 선호할 것이다. 이 얘기에 동의하는 독자가 있다면 Pro Tools 11에 새롭게 추가된 단축키 기능으로 여러분의 작업 속도를 높여 보자.

3. 모디파이어 키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트랙 생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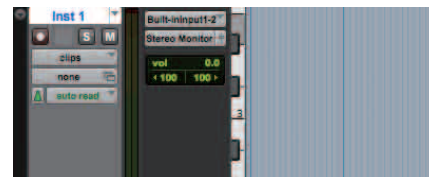
Pro Tools 11부터는 키보드 모디파이어 키를 활용하여 다양한 트랙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개별 모디파이어 키에는 특정 트랙이 생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우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빈 세션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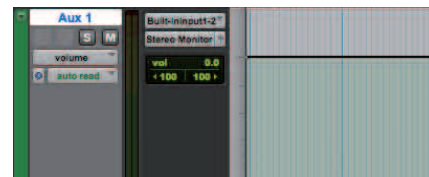
오디오 트랙 생성 : 재생목록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키보드 중 Command (Mac) / Control (PC)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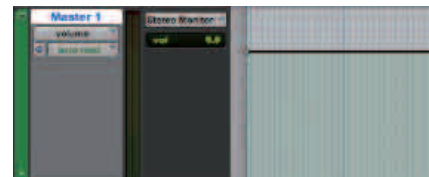
악기 트랙 생성 : 재생목록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키보드 중 Option (Mac) / Alt (PC)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다.



Aux 트랙 생성 : 재생목록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키보드 중 Control (Mac) / Start (PC)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다.



Master 트랙 생성 : 재생목록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키보드 중 Shift (Mac) / Shift (PC)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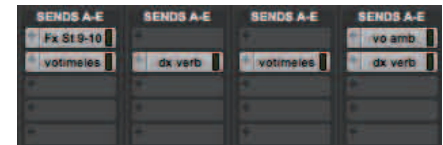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키보드에서 모디파이어 키의 위치와 이에 해당하는 트랙 종류를 표기해 둔 키보드 그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니 꼭 숙지했다가 재빠르게 트랙을 생성해 보시길 바란다. 참고적으로 믹스 윈도우에서도 모디파이어 키와 트랙 종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Mac 키보드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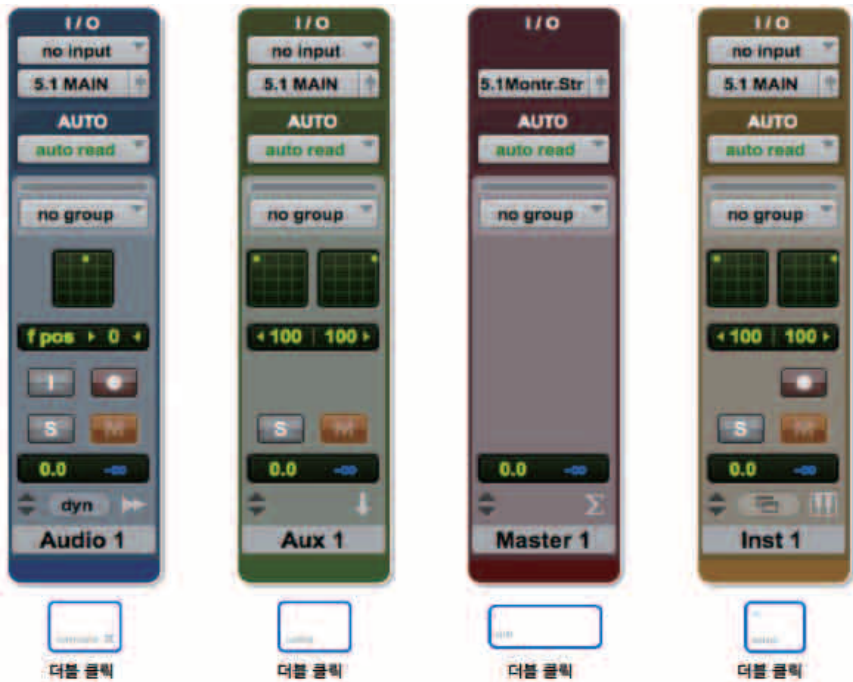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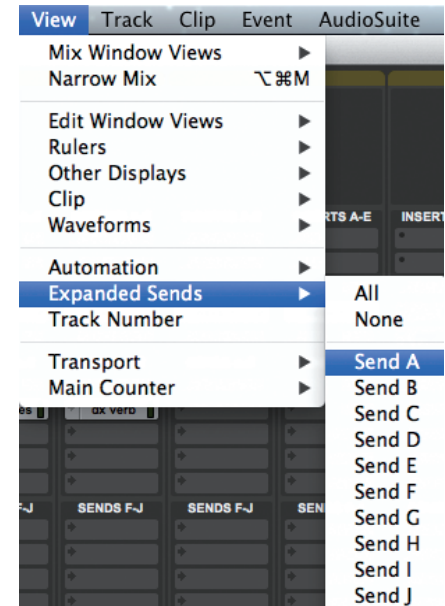
4. Pro Tools 소프트웨어를 아날로그 콘솔 처럼

Pro Tools 11에는 기존 아날로그 콘솔의 느낌을 높여주고 샌드의 페이더를 한눈에 확인하며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샌드 섹션에 확장 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이 샌드 A-E 섹션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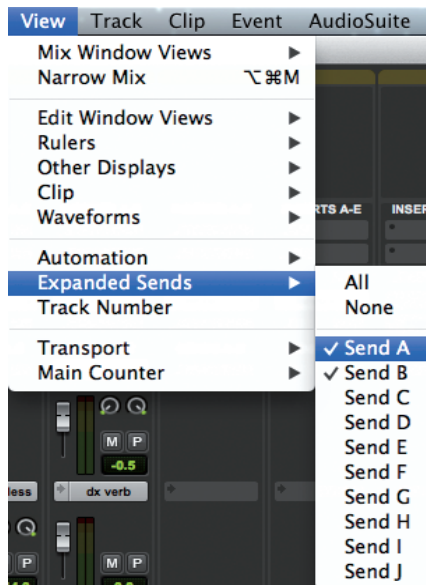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대로 A-E 섹션의 뷰를 확장하려면 View > Expanded Sends로 간다.



Tip 2 :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트랙 생성하기

편집 또는 믹스 윈도우의 공간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생성했던 종류의 트랙을 생성할 수 있다.

Expanded Sends 목록에서 확장하고자하는 샌드 섹션을 클릭한다. 현재 샌드 A-E에서 A와 B에만 샌드가 설정되어 있으니 A와 B만 선택해 보자.



A와 B를 선택했을 경우 보여지는 샌드의 확장 뷰는 아래와 같다.



5. 단축키는 눈보다 빠르다

대부분의 레코딩 또는 믹싱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신속한 작업을 위해 단축키를 애용할 것이며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어떤 단축키가 추가되었는지도 쓸쓸한 재미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Pro Tools 11에는 어떤 새로운 단축키가 추가되었는지 살펴보자.

6. 간편한 샌드 뮤트

Pro Tools 11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축키로 샌드를 뮤트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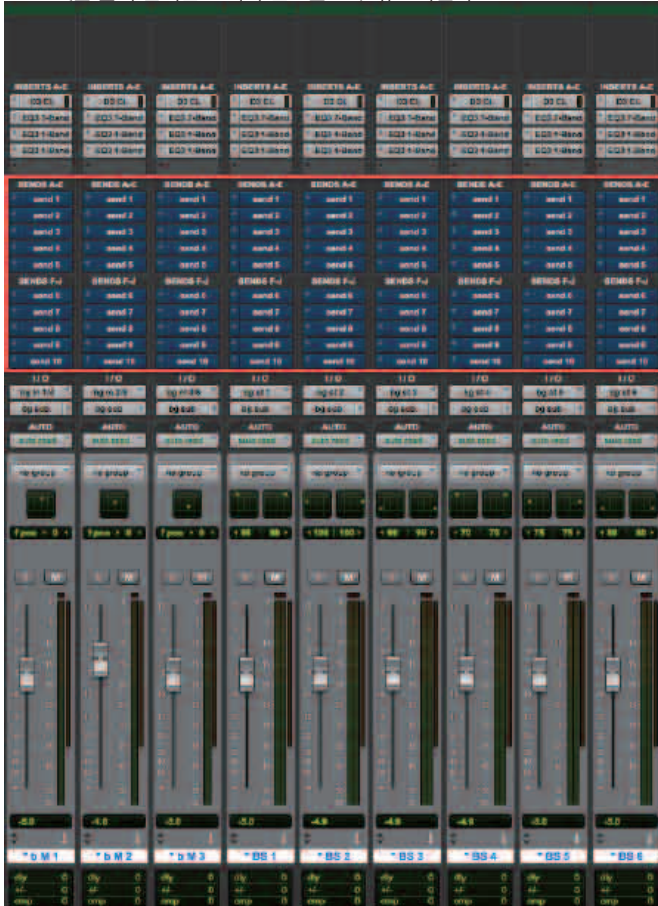
- 샌드 뮤트를 적용할 트랙들을 선택한 후 Shift+Q를 누르면 선택한 모든 트랙의 샌드가 뮤트/언뮤트된다.
- 선택한 트랙에서 샌드 A-E 섹션에 있는 모든 샌드를 뮤트/언뮤트하고자 할 때에는 Shift+3을 누른다.
- 선택한 트랙에서 샌드 F-J 섹션에 있는 모든 샌드를 뮤트/언뮤트하고자 할 때에는 Shift+4을 누른다.

그럼 하나의 예로 선택한 트랙에서 전체 샌드를 뮤트시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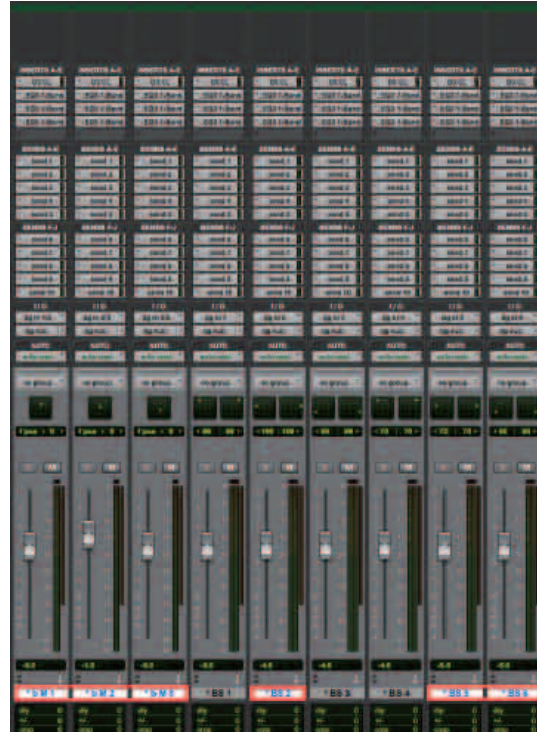


샌드를 뮤트시킬 트랙을 선택한다.

Shift+Q를 눌러 선택한 트랙의 샌드를 모두 뮤트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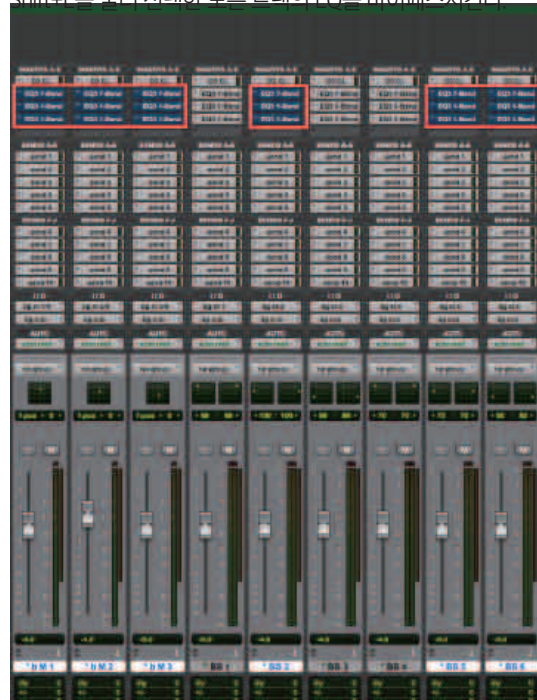


그럼 선택한 트랙에서 EQ 플러그-인들을 바이패스시켜보자.



EQ 플러그-인을 바이패스 시키고자 하는 트랙들을 선택한다.

Shift+F를 눌러 선택한 모든 트랙의 EQ를 바이패스시킨다.



7. 인서트 바이패스

Pro Tools 11에서는 샌드 뮤트 외에도 선택한 트랙의 인서트 중 전체 또는 특정 인서트를 바이패스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축키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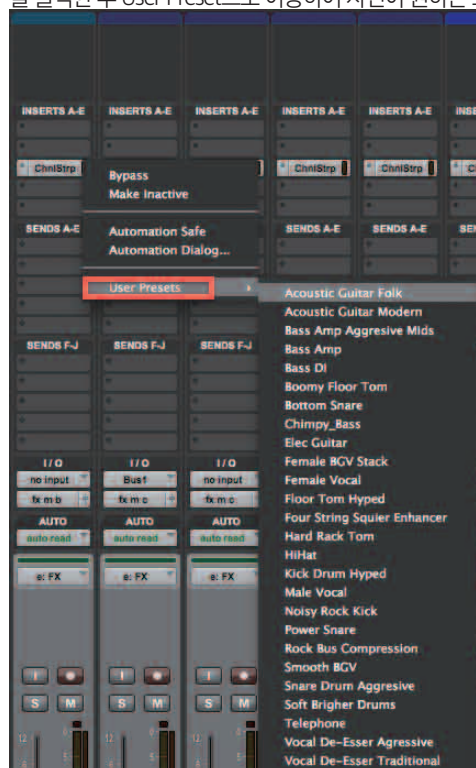
바이패스에 관한 단축키는 다음과 같으니 작업에 활용해 보기 바란다.

- Shift+A: 선택한 트랙의 모든 인서트를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1: 선택한 트랙의 A-E 색선의 모든 인서트를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2: 선택한 트랙의 F-J 색선의 모든 인서트를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E: 선택한 트랙의 모든 EQ 플러그-인을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C: 선택한 트랙의 모든 다이내믹 플러그-인을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V: 선택한 모든 트랙의 리버브 플러그-인을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D: 선택한 모든 트랙의 딜레이 플러그-인을 바이패스/언바이패스
- Shift+W: 선택한 모든 트랙의 모듈레이션 플러그-인을 바이패스/언바이패스

8. 가제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나와랏!

예전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형사 가제트'를 보면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원하는 장비나 무기들이 쑥 튀어나왔다. 물론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기에 가제트 형사의 대처 능력에 근접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Pro Tools 11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 바로 User Preset 기능이다.

프리셋을 변경하고자하는 플러그-인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User Preset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리셋을 클릭한다.



9. 새로운 플러그-인 Click II

Pro Tools 11 소프트웨어에는 AAX 포맷의 새로운 메트로놈 플러그-인인 Click II가 무료로 제공된다. 세션에서 템포나 박자를 조절할 수 있으며 모노 전용으로 제작된 플러그-인이다.



맺음말

치기 전에, 비록 짧은 기간의 속성 튜터리얼이긴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호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작업자의 스타일과 환경에 따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그 중에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지 결정되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다. 필자 또한 3번에 걸쳐 소개된 Pro Tools 11의 모든 새 기능을 모두 숙지해서 사용하시기 보다는 본 튜터리얼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